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마태복음 25:31-40

미국 어느 시청에서 마구간 장식을 만들어 성탄을 기념했는데, 시즌이 끝나고 보니 구유 속 강보 안에 있어야 할 아기 예수 상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 실종, 예수 소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임신(臨産)한 마리아가 여관에 있을 곳을 찾지 못했기에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천한 출생이 또 있겠습니까?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내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린양 되신 예수님이 축제의 주인공이지만 축제에 들뜬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조차도 예수님을 잃어 버렸다가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자르트 사퍼의 <위대한 여행>에는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 중 네 번째 러시아 왕의 전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포, 모피, 진주, 황금, 벌꿀을 가지고 예수님을 뵈러 출발했는데 도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 받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고 가던 선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30년 후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가난한 자를 통해 다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본문은 종말 심판 광경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뒤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양 편에 속한 사람들은 축복과 칭찬과 상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염소 편에 있던 사람들은 저주와 책망을 받고 영원한 불에 처하게 됩니다. 영생과 영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양 편에 속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대접했지만 염소 편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소외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40).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성경에도 작은 자를 대접함으로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복 받은 사례가 많은데, 하나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세 행인, 롯과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 부자 곁에 있던 거지 나사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접근한 한 행인.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며 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된 일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워 ‘작은 자’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어리고, 비천하고, 작아지고,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피난 가고, 인간에게 의탁해야 하고, 우시고, 추위에 떨고, 외로운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책임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편 작은 자를 돕는 행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작은 자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배고픈 예수님과 음식을 공급하는 예수님, 목마른 예수님과 마실 물을 공급하는 예수님, 병든 예수님과 치유하시는 예수님... 서로가 만나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